

여름철의 절기와 기상

- 망종에서 처서까지 -

김 우 탁 <기상정보센터 소장>

• 망종 - 농촌이 바쁜 계절

망종이라는 말은 소맥, 대맥과 같은 까끄라기가 있는 작물의 열매가 성숙하고 이를 수확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는 벼와 같이 논에서 자라는 작물의 모내기가 한창인 계절임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망종은 忙種이라고도 했다.

그만큼 농촌이 바쁜 계절임을 말한다.

망종 이후의 기후는 장마의 전조로서 구름이 자주 끼고, 남부지방에는 비가 자주 오나 중부 지방은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를 보이며 가뭄이 들 때도 있어 해에 따라서는 제철에 모를 내지 못하기도 한다.

열양세시기에 따르면, 이무렵에 내리는 비를 태종우(太宗雨)라 부른

다고 했다. 조선조 태종은 평소 농사일을 걱정해 가뭄이 들면 스스로 옥황상제께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다는데, 그후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10일 (망종 무렵에 해당)이면 꼭 비가 내린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하지 - 태양의 계절

일년중 낮이 가장 긴 계절 -

낮이 밤보다 3분의 1 가량이나 더 길다. 태양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낮이 긴 나뭇으로는 이무렵이 일년 중 가장 더워야하지만, 하루의 최고기온이 대개 오후 2시 이후에야 나타나는 것과 같이 아직은 땅이 덜 더워졌기 때문에 땅이 충분히 더워

히 영국에서는 6월24일을 「미드 서머데이」라고 해서 손꼽히는 축제일로 돼 있다. 바로 이 축제가 셰익스피어의 명작 「한여름 밤의 꿈」을 낳게 한 것이라고도 한다.

기상학적으로는 구름이 많은 계절로 접어드는게 우리나라의 기후이기도 한다.



• 소서 - 장마에 꺾이는 더위

1921년의 이날. 이라크의 「바스라」 지방은 섭씨 58도 8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살인적인 더위를 기록한 일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나는 곳은 예외없이 비가 적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바꾸어 말하면 비가 적으니까 그렇게 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다.

우리나라의 더위도 소서를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더운 계절로 접어든다.

원래 소서니 대서니 하는 말의 서(暑)자는 덥다는 뜻으로 일년 중에서도 가장 더운 계절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은 가장 더운 때가 아니라고 해서 소서라고 하고, 일년중 가장 더운 무렵을 대서라 부르고 있다. 대개 소서 무렵은

저서 태양에서 오는 열량과 지면에서 나가는 열량이 같아지는 8월이 가장 더운 시기가 된다.

그러나 열대지방과 같이 언제나 땅이 더워져 있는 곳에서는 태양이 그 지방의 머리위에 올 때가, 다시말해 적도 부근에서는 춘분 때가 가장 더워진다.

옛날 서양에서는 낮이 긴 이 계절을 기념하는 축제가 많았다. 특

장마기에 해당되기도 해서 우리나라의 소서는 물에 젖어 큰 더위가 없는게 보통이다.

그런데 해에 따라서는 장마가 늦어진다든가, 있는 등 마는 등 지나쳐 버릴 때도 있어 소서 무렵부터 숨막히는 더위가 시작되기도 한다.

•대서 - 앞으로 보름이 가장 더운 시기

대서는 대한에서 따져 꼭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시기와 가장 추운 시기가 약 반년을 주기로 바뀌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이 지나면 추위가 누그러지는 것이 겨울철의 기후인데 비해, 여름철에는 이와 달라서 대서를 넘기면서부터 더위가 본격에도 오르게 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대서가 지난 후 20여일 동안이 일년 중 가장 무더운 계절이 된다.

우리나라 여름철의 무더위는 모두 태평양의 오까사하라(小笠原)섬 부근에 뿌리를 박고 있는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다.

이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덮을 정도로 확장해 오면 무더위와 한발이 계속 되게 마련이다. 오로지 한차례의 소나기만이 유일한 청량제가 된다.

그래서 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때면 태풍이라도 올라와야만이 고기압이 쉽게 무너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때의 태풍은 차라리 고마운 존재다.

•입추 - 복중에 드는 가을의 전령

가을의 문턱에 들어 선다는 입추는 대개 말복 이전에 드는 경우가 많다.

입추는 태양이 천구상의 입추점, 즉 시황경이 1백35도에 이르는 날인데, 6개월전의 입춘과는 완전히 1백80도의 차이가 있다.

입춘이 여한(餘寒)이라는 이름의 추위 속에서 들게 되는 것과 같이 입추도 삼복 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에 찾아 들고 있다.

그래서 입춘이 봄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입추도 가을로 들어간다는 뜻이라기 보다, 가을이 온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대륙에서는 이 무렵이면 여름이 물러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한반도의 경우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새벽녘의 기온 하강률이 입추 이전에 비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또 산위에서는 기온변화의 폭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동지때까지는 절기가 산위에서 시작돼 점차 평

지를 내려오는 셈이 되는데 그 기간이 약 보름가량 걸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실제의 기후보다 절기가 약 보름 가량 앞서 가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처서

처서는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로 들어 선다는 계절이지만, 해에 따라서는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바로 이 날에 섭씨 38도 2분까지 수은주가 치솟은 기록적인 더위가 있고, 부산에서는 지금까지의 최고기온이 8월30일에 나타난 것으로 돼있어 늦더위의 콧대가 높기로 들면 감당하기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여름을 넘기는 길목이고 보면 비록 늦더위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쩔 수 없이 가을이라는 계절감이 충만하기 마련이다.

주위의 환경도 그렇다. 하지를 넘긴 이때 태양의 고도는 계속 낮아져 어느새 눈에 띄게 밤이 길어졌고 마루끝에 들어오는 햇볕도 지금쯤 많이 길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다.

계절의 변화는 언제나 햇빛의 변화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는 셈이다. ☼